서양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Anthropos’

이 승 황

들어가는 말

拙稿《〈서양 연금술의 심리학적 이해〉》함에서 보았듯이, 비록 중세 연금술사들이 물질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였지만, 정신을 무사함으로써 '물질의 혼Seele der Stoffe' 혹은 '세계의 혼anima mundi'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계의 혼'은 세계 창조 흐에 전조가 되는 신적 기체임 '제1의 물질prima materia'이며,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 '집단무의식'에 해당한다. 연금술사들이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이를 '비밀의 기체'로서 다루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의 '비밀의 기체'를 살펴보면, '집단무의식'의 자기 목적적 활동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개인의 전(全) - 인격화Individuation'에 목적을 두었다. C.G.Jung은 중세 연금술의 작업을 이해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무의식'의 변환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고, 정신의 본질적인 의미나 목적의 개인 '의식'에서의 실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자아와 무의식과의 관계〉》에서는 자아와 무의식이 관계한다는 것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다른 두 가지 그 자체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환상과 더불어 작업하면서 무의식이 스스로 변용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변용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연금술을 알게 된 뒤에는 야비로소 무의식이 하나의 '과정Prozeß'이라는 것. 그리고 무의식의 내용과의 관계에 의하여 자아 정신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각 개인의 경우에 그 과정은 끝이나 인상에서 잊을 수 있다. 집단 세계의 경우에 그 과정은 주로 여러

*용학과 정신분석가, C.G.Jung 심리학 연구실.

1) 이 승 황, 《서양 연금술의 심리학적 의미》, 심성연구(1996), 제11권 제1,2호 표를, 제15호, 21-66쪽 참고.
가지의 종교체계와 그것이 가진 상정의 변환 속에 남은 침전물로 발견된다. 개인 또는 집단의 변화과정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연금술의 상정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심리학의 중심개념인 개인의 전(全) - 인격화과정 Individuationsprozeß'에 이르게 되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세계의 혼'이 모든 물질을 관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물질에 관통하면 그 물질은 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theomorphisch 것으로 여겼다. 그 래서 작업은 자연히 '비밀의 기체'의 발견과 그것의 변용을 지향한다. 작업의 결과는 관통된 대상에 따라, 예를 들면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질에서 유래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이름의 결과물에서 하나의 공동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모두 하나의 '인격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술의 완성된 결과물은 모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보편자로서의 인간인 '안트로포스Anthropos'이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Selbst' 혹은 '자기 - 원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안트로포스'에 해당하는 개념은 중세의 연금술사들에 의하여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원상 Urbild인 '최초의 인간'을 의미하고, 인간의 종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자'를 의미하며, 또한 그동안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이런 고대적 관념을 의식하여 '안트로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내용을 형성하였다. 이를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라고 부른다.

모든 연금술의 완성된 결과가 '안트로포스'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있듯이, '안트로포스'의 이해는 연금술의 이해에 있어 핵심적이다.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세 연금술에서 다루는 여러 변용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중세 연금술에서의 '안트로포스'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안트로포스'라는 용어가 고대적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고대 신화나 그노시스적 가르침 등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밝혀 보려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 중세 연금술에서 '안트로포스'의 실험을 위해 먼저 연구 대상으로 구해져야 하는 '비밀의 기체Arkansubstanz' 혹은 '변용의 기체Wandlungssubstanz'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의 기체'로서 알려진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밀의 기체'의 여러 이중적 특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심